

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 효과 분석 : 두드림존프로그램 참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조규필* · 권해수** · 김범구*** · 박가열****

초 록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지원프로그램(두드림존프로그램 1단계 교육프로그램)을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시한 후 참여자의 유형별로 그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두드림존 시범운영기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520명(학교부적응집단 138명, 대안교육집단 92명, 가출집단 57명, 비행집단 190명, 직업훈련집단 43명)이다. 프로그램은 4일간 총 6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8시간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성숙도검사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성취도 검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처리는 참여자의 유형간 프로그램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두드림존프로그램은 진로성숙도를 제고시키며, 사회진출의 필수 요소인 비전설정, 경제마인드, 직업이해, 구직 및 생활적응 기술, 실천의지를 높이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유형에 따른 효과 분석에서 학교부적응집단과 비행집단이 대안교육집단, 가출집단, 그리고 직업훈련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 회기별 만족도에서 참여자들 대부분 흥미성과 유익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회기가 진행될수록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 유형별 특성화 두드림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위기청소년, 자립, 사회진출, 두드림존

*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교신저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원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I. 서 론

최근 들어 해체 가정이 증가하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로 인한 청소년 가출 및 학업중단의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과 학교와 같은 보호체계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와 약물중독, 인터넷 중독, 자살 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위험 상황에 노출된 한국의 위기청소년 수는 1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가출, 학업중단, 학대, 방임 등 복합적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고위기 청소년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은 일반 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하여 아무런 자립 준비도 없이 성인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로 준비를 거친 사람들과 생존경쟁 사회에 내몰리게 될 경우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립의 개념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자립 외에도 정서와 심리적 독립까지를 포함하는 것(노혁, 2004)이라고 본다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된 청소년들은 자립을 위한 주변 자원체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직업선택의 폭도 좁아지기 때문에 더욱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OECD에서도 위기청소년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 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는 등(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위기청소년이 직업을 갖고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위기청소년들은 자립에 대한 동기와 목표 의식이 부족하고(강복정, 2002; 노 혁, 2004; 신혜령, 2001; 오승환, 2006; Mech, 1994), 경제 관념이 희박하거나 복지의존성이 높고(김지혜, 2005; 이시연, 2005; Baron & Hartnagel, 1998), 직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고(이용교, 2006; ; 이희연, 2005; 전경숙, 노재봉, 2003; Baron & Hartnagel, 1998), 대인관계기술이나 일상생활기술이 부족하여(박은선, 2004; 이용교, 2006; 신혜령, 2001)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위기청소년의 사회 진출 및 자립의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요소들로 미래와 진로에 대한 동기화, 직업탐색, 대인관계기술, 일상생활기술, 경제교

육, 구직기술, 결의와 목표 세우기 등이 언급되고 있다(김지혜, 2005; 이희연, 2005; 이용교, 2006; 오승환, 2006; Mech, 1994; Maluccio, Krieger & Pine 1990; Neumark & Joyce, 2001). 이 중에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내보다는 주로 외국의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내·외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기관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자립 및 사회진출에 필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청소년상담원의 'TOP 프로그램', 강남구청청소년쉼터의 '잡(Job)아라', 후농청소년쉼터의 '혼자 일어서기', Macdonal Youth Services의 '생활훈련프로그램', 'Chafee Foster Care 자립프로그램' 등이다. 각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보면, '미래와 목표를 위한 결의다지기', '직업탐색'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직기술', '동기화', '일상생활기술', '경제교육', '대인관계기술'도 일부 프로그램에서 다뤄지고 있다.

한편,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참가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현림, 박필자, 2006), 특히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진로성숙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왔는데 이는 해당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경험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비행의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더욱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양종국, 2004). 학교 재학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지위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는 지위비행 중 무단결석의 보호요인임이 확인되었고, 보호관찰소 관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성숙도와 비행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래, 이혜원, 2007; 문미란, 199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진로성숙도를 향상 시켜주기 위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위기 상태에 처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나아가 사회진출을 준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기-평가, 피드백, 직업에 관한 특수 및 일반 정보, 진로 결정에 관한 조언 등이 폭넓게 포함되는 것이 개입의 범위를 협소하게 두었을 때보다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통합적이며 최신의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Linn, Ferguson, & Egart, 2004; Shevlin & Millar, 2006).

그러나 위에서 분석된 기존의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에 필요한 제요소들이 종합적으

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요소들을 두루 배우려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개별적인 진로지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들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청소년 위주의 구성과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하여 위기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위기청소년 대상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수준 규정과 스스로 성취, 자립동기를 증진시키고, 근로 의욕 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그 결과 진학이나 취업 포기 등 사회에서의 중도 탈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이하 두드림존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조규필 외, 2007).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기존 위기청소년 자립 준비에 필수 요소로 검증된 요소들, 즉 미래를 위한 직업진로 동기화, 경제교육, 직업탐색, 구직기술, 대인관계기술, 일상생활 기술, 결의다지기과 목표세우기 등을 중심으로 총 6회기, 45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Edu-work 개념의 놀이를 통한 진행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되게 두드림존 프로그램은 사전 스크린 단계를 거쳐 1단계의 동기화 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여기서 통과한 대상자들은 2단계 체험 중심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며, 마지막 3단계의 사회진출 지원과 정(취업 및 인턴십, 직업훈련, 복교 및 검정고시)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1단계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CYS-Net)과 연계하여 청소년 동반자(Youth Companion)나 전문 멘토로부터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지난 2007년에 개발된 두드림존프로그램은 시범운영기관을 중심으로 가출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소년보호시설(소년원)청소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청소년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등의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두드림존프로그램의 전국적인 확대 보급을 앞두고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드림존 시범 운영기관에서 실시된 1단계 동기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진미석(2007)은 '두드림존 프로젝트의 장기발전 컨설팅'을 제시하기 위하여 두

드림존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진미석(2007)은 진로성숙도와 프로그램 성취도의 사전, 사후검사 비교를 통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 실시 이전보다 이후 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각 회기별 프로그램 만족도는 3.65이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두드림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진로성숙도를 제고하고,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를 제고시키는 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진미석(2007)의 연구는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두드림존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두드림존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진들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성취도 척도’를 충분한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그 결과를 신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두드림존 프로그램은 심각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을 이탈하여 제대로 된 자립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정규학교 청소년과 생활영역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서정아 외, 2007), 학교밖의 생활영역에 따라 상이한 생활경험을 보여주고 있으므로(권해수 외, 2007), 이러한 생활 경험의 차이는 자립 및 사회진출 동기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생활 경험에 따라 그들을 유형화하여 두드림존프로그램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한다면 이후 위기청소년의 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회기별 프로그램 만족도(흥미성/유익성)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변화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두드림존 시범운영기관에서 실시된 1단계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52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부적응집단은 학교 이탈 행위로 징계를 받았거나 기타 이유로 학교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138명(전체 참여자의 26.5%)이었다. 대안교육집단은 중, 고교 학업중단자이거나 혹은 정규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워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92명(전체 참여자의 17.7%)이었다. 가출집단은 가출 이후 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57명(전체 참여자의 10.7%)이었으며, 비행집단은 각종 비행과 이탈행위로 소년원에 수용 중이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190명(전체 참여자의 36.5%)이었다. 직업훈련집단은 빈곤층을 위한 SK행복날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로 인턴십과 취업을 목적으로 6개월간 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43명(전체 참여자의 8.3%)이었다. 기타 참여자의 주요 특성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성

항 목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가 출	비 행	직업훈련
성 별	남 자	110(79.7)	58(63.0)	21(36.8)	131(68.9)	42(97.7)
	여 자	28(20.3)	34(37.0)	36(63.2)	59(31.1)	1(2.3)
연 령	16세이하	1(0.7)	13(4.6)	19(34.5)	23(12.2)	0(0.0)
	17-19세	135(99.3)	65(73.0)	25(45.5)	141(75.0)	15(35.7)
	20세이상	0(0.0)	11(12.4)	11(20.0)	24(12.8)	27(64.3)
기초수급 대상자	비수급	72(72.0)	42(65.6)	9(45.0)	109(80.7)	17(54.8)
	수 급	28(28.0)	22(34.4)	11(55.0)	26(19.3)	14(45.2)
주 거 상 황	자 가	60(54.5)	33(47.1)	3(12.0)	41(29.3)	7(23.3)
	비자가	50(45.5)	37(52.9)	22(88.0)	99(70.7)	23(60.7)
알 바 경 험	무	45(34.9)	47(53.4)	22(40.0)	53(32.1)	9(31.4)
	유	84(65.1)	41(46.6)	33(60.0)	112(67.9)	33(78.6)
취 업 경 험	무	117(91.4)	33(47.1)	3(12.0)	41(29.3)	7(23.3)
	유	11(8.6)	37(52.9)	22(88.0)	99(70.7)	23(66.7)

2. 두드림존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본 연구의 분석대상 프로그램인 두드림존프로그램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 부적응하거나 이탈한 위기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직업진로 목표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게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직업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기초 지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미래의 꿈과 비전에 대한 강한 동기와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는다.
- 기본 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금융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 올바른 경제 마인드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
-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분야를 찾아본다.
- 취업에 자신이 없는 위기청소년들이 효과적인 구직기술과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생활시 유용한 근로상식을 배운다.
- 자립생활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기술을 습득한다.
- 구체적인 진로목표 설정과 성취계획 세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진다.

2) 두드림존프로그램(1단계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일 차	회 기	회기명	프로그램 성취목표	핵심내용
1일차	1회기	드림 빌딩	진로에 대한 동기화 : 미래의 꿈과 비전에 대한 강한 동기와 성공에 대한 열망제고	• 두드림존프로그램 전체 소개 • 팀 짜기 & 참여자 소개 • 라포형성 놀이 • 약속 정하기 • 성공사례 공감 • 10년 후 내 모습 표현
2일차	2회기	경제야 놀자	올바른 경제마인드형성 : 기본 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금융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 올바른 경제 마인드를 형성함 으로써,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 향상	•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 • 경제교육의 필요성 • 수요와 공급의 원칙 • 생산의 3요소, 협상, 기업 이해 • 생활 속 경제 정보의 중요성 • 투자로 배우는 실물 경제 • 나만의 돈 관리법
	3회기	직업의 바다로	직업세계이해도 제고 :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다양한 직업세계의 탐색능력향상	• 나의 직업유형 찾기 • 직업세계 전망과 희망분야 탐색 • 퀴즈로 알아보는 “직업세계” • 나에게 딱 맞는 직업 탐색
3일차	4회기	신입 직원 선발의 날	취업준비도 제고 : 효과적인 구직기술과 직장 적응하기 위한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생활시 유용한 근로상식을 학습	•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성 확인 • 잘 쓴 이력서 포인트 습득 • 이력서 작성 연습 • 면접 요령과 면접복장 • 모의 면접 • 역할극을 통한 문제해결과정 훈련 • 나만의 명함 제작 • 잡마블을 통해 근로권 습득
	5회기	독립 만세	자립생활준비도 제고 : 자립생활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기술을 습득	• 나의 자립준비상태 점검 • 자립생활에 필요한 상식 습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집구하기 요령 습득
4일차	6회기	이 세상 최고의 밥상	진로설계의 구체 화: 구체적인 진로목표 설정과 성취계획 세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의	• 나에게 중요한 가치 • 인생의 방향 설정 • 목표세우기 법칙 설정 • 자립도전기 만화 사례 • 목표 세우기 위한 결의 다짐 • 빛나는 수료식

3) 프로그램 개발과정

본 프로그램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청소년상담원 주관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교육 전문기관, 현장전문가 등 11명의 청소년 진로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선행연구조사, 13명의 전문가 집중워크숍(1/25), 위기청소년 515명 대상의 요구도조사(3/27~4/27), 3차례의 포커스그룹 운영(2/6~4/12), 10차례의 프로그램 시범운영(5/7~6/29)을 거쳤으며, 이밖에 다수의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1월~4월)이 이루어졌다.

3. 연구절차

두드림존 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상담원 주관으로 전국 12곳의 두드림존 시범운영센터에서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각 센터별로 지역내 위기청소년 보호기관 대상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대부분 시범운영센터였으나, 일부는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원거리 한계상 소년원 및 청소년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한 2박3일간의 집중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개별 프로그램은 총 4일간 6회기 18시간에 걸쳐, 15명 내외의 집단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비자발적인 청소년의 참여동기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22종의 교구와 애니메이션, 영상물 등이 포함된 1종의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5~6월까지 2개월간 10개 집단 174명을 대상으로 사전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연구는 7~11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범운영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는 프로그램 진행자에 의해 프로그램 직전-직후에 진로성숙도와 프로그램성취도를 측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직후에 만족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때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자에게는 프로그램 집중교육시 별도로 검사방법을 교육했으며, 청소년에게는 검사 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결과는 지역별로 매 프로그램 완료시마다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후, SPSS win 12.0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을 실험집단으로 하여 사전·사후검사와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실험 설계이다. 원래는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반복조사로 인한 시험효과(testing effect)를 억제하여야 하나,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수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실험집단만의 검사로 한정하였다. 단위 실험집단은 4일동안 두 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15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실시 직전 1시간동안 진로성숙도와 프로그램성취도를 측정하였으며,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마지막날 프로그램 종료직후 동일검사도구로 진로성숙도와 프로그램성취도를 측정하였고, 만족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5. 측정 도구

본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사회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참여자들의 자립에 대한 내적 준비상태로서 진로성숙도와 진로에 대한 자아개념을 확인하고자 진로성숙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요소별 목표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진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만족도 검사지를 통해 집단유형별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요소별 만족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위기청소년 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시 만족도를 고려한 매뉴얼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1) 진로성숙도 검사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활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8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계획성(13문항)’, ‘일에 대한 태도(13문항)’, ‘자기이해(15문항)’, ‘독립성(13문항)’, ‘정보탐색 및 합리적 의사결정(15문항)’ 등 5개 영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검사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계획성 .83, 일에 대한 태도 .76, 자기 이해 .86, 독립성 .79, 정보탐색 및 합리적 의사결정 .9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프로그램 성취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두드림존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진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성취도 검사’를 활용하였다. 프로그램 성취도는 각 회기별 목표 달성여부와 프로그램 실시의 타당도 여부 등 두드림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성취도는 6회기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핵심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6~8문항씩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 성취도 척도가 안정적인 요인 구조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KMO는 .949, 구형성 검증결과 $X^2 = 11279.32$, $p < .001$ 로 나타나 요인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의 수는 7개로 나타났지만, scree test에서는 4개 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래 척도가 6요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인수를 5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와 문항특성 분석을 통해 적절치 않은 5문항을 제거하여 총 35문항을 추출한 후,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비전설정(6문항) 14.33%, 요인2-직업이해(6문항) 11.35%, 요인3-구직 및 생활적응기술(9문항) 11.29%, 요인4-실천의지(8문항) 9.36%, 요인5-경제마인드(6문항) 8.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5개 요인은 문항 전체 변량의 55.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검사의 내적합치도는 비전 설정 .80, 경제마인드 .76, 직업이해 .79, 구직 및 생활적응기술 .85, 결단력 .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실시하는 것으로서 4일간 6회기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흥미 만족도, 유익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6. 자료 분석

먼저, 진로성숙도, 프로그램 성취도 검사의 각 하위요인별로 사전-사후 검사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참여자의 유형(학교부적응, 대안교육, 가출, 비행, 직업훈련집단)간에 프로그램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혼합 변량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회기별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흥미성에 대한 만족도와 유익성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참여자 유형별 진로성숙도의 효과

집단(학교부적응, 대안교육, 가출, 비행, 직업훈련집단)간 사전, 사후에 걸쳐 반복 측정된 진로성숙도 점수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혼합-설계 분산 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 시기의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계획성'의 사전 평균 점수($M=40.15$, $SD=4.15$)와 사후 평균점수($M=43.32$, $SD=4.43$)간의 비교에서, 그리고 '정보탐색 및 진로의사결정'의 사전 평균점수($M=53.69$, $SD=9.14$)와 사후 평균점수($M=60.05$, $SD=9.80$)간의 비교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이전보다 이후 점수가 높아졌다. 그리고 '계획성'과 '진로정보 탐색 및 의사결정능력'에서 각각 측정시기와 집단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계획성 $F=3.43$, $p<.01$, 정보탐색 및 진로의사결정 $F=2.49$, $p<.05$). 집단 $\times$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림 1], [그림 2]로 제시하였다. '계획성'에서 직업훈련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사전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프로그램 사후점수가 다소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정보탐색 및 의사결정'에서는 비행집단과 학교부적응 집단의 경우 큰 폭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직업훈련집단의 경우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2개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독립성'에서 측정시기의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이해'의 사전 평균점수(M=50.15, SD=6.04)와 사후 평균점수(M=40.12, SD=3.32) 간의 비교에서, 그리고 '독립성'의 사전 평균점수(M=40.12, SD=3.32)와 사후 평균점수(M=41.36, SD=3.95)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이전보다 실시 이후 점수가 높아졌다(자기이해 $F=60.27$, $p<.001$, 독립성 $F=9.79$, $p<.01$). 그러나 '자기이해'와 '독립성'에서는 측정시기와 집단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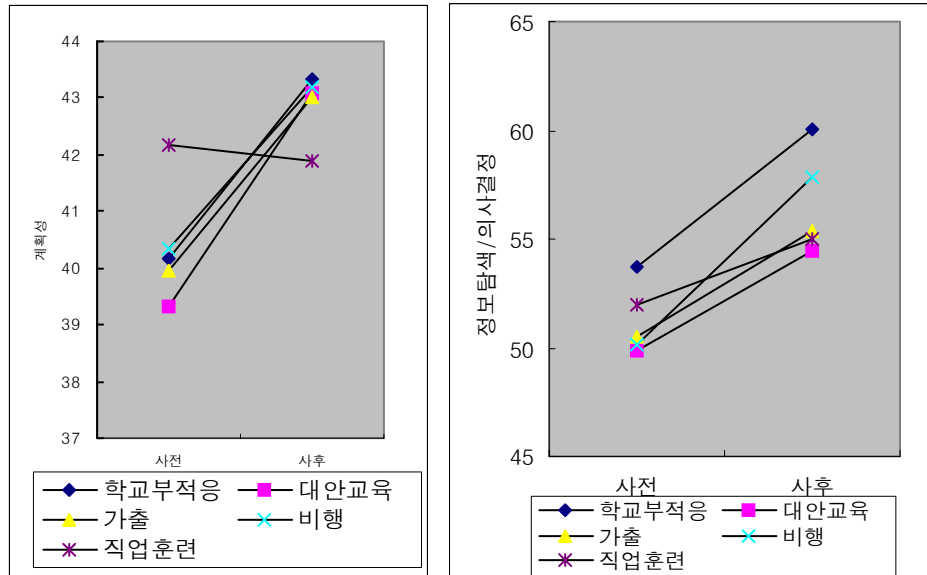
<표 2> 참여자 유형별 진로성숙도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교부적응 M(SD)	대안교육 M(SD)	가출 M(SD)	비행 M(SD)	직업훈련 M(SD)
계획성	사전	40.15(4.15)	39.33(5.45)	39.94(5.14)	40.35(4.03)	42.16(4.27)
	사후	43.32(4.43)	43.07(6.96)	43.03(4.88)	43.20(5.44)	41.88(4.03)
일태도	사전	40.72(4.60)	39.45(5.89)	38.26(5.53)	39.94(4.41)	39.83(3.84)
	사후	39.18(4.55)	39.28(7.92)	39.17(4.87)	39.25(5.20)	40.16(4.27)
자기 이해	사전	50.15(6.04)	48.08(7.79)	48.57(7.37)	48.38(5.47)	50.66(4.50)
	사후	53.19(6.35)	51.03(8.40)	51.07(6.82)	52.49(7.17)	51.90(5.58)
독립성	사전	40.12(3.32)	39.20(4.98)	40.43(4.30)	40.12(3.76)	41.30(3.16)
	사후	41.36(3.95)	41.07(7.13)	40.63(3.75)	41.60(4.76)	41.02(3.48)
의사 결정	사전	53.69(9.14)	49.88(10.45)	50.50(11.15)	50.14(8.42)	51.97(9.50)
	사후	60.05(9.80)	54.41(11.16)	55.36(13.26)	57.83(11.82)	55.00(9.54)

<표 3> 진로성숙도의 혼합 변량분석 결과

요 인	변량원	SS	df	MS	F
계획성	측정시기	1229.76	1	1229.76	65.96***
	집단	59.52	4	14.08	.49**
	시기×집단	255.71	4	63.93	3.43**
일태도	측정시기	10.51	1	10.51	.58
	집단	146.96	4	36.74	1.02
	시기×집단	152.84	4	38.21	2.13
자기이해	측정시기	1477.16	1	1477.16	60.27***
	집단	635.07	4	158.76	2.47*
	시기×집단	178.54	4	44.63	1.83
독립성	측정시기	158.49	1	158.49	9.79**
	집단	90.15	4	22.54	.97
	시기×집단	104.19	4	26.05	1.61
의사결정	측정시기	5456.74	1	5456.74	89.96***
	집단	2984.37	4	746.09	4.87***
	시기×집단	606.39	4	151.59	2.49*

* $p<.05$, *** $p<.01$, **** $p<.001$



[그림 1] 측정시기×집단간 계획성 [그림 2] 측정시기×집단간 정보탐색/의사결정

2. 참여자 유형별 프로그램 성취도의 효과

집단(학교부적응, 대안교육, 가출, 비행, 직업훈련)간 사전, 사후에 걸쳐 반복 측정 한 프로그램 성취도 점수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혼합-설계 분산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4〉, 〈표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비전설정’, ‘경제마인드’, ‘직업이해’, ‘구직 및 생활적응기술’, ‘실천의지’ 등 모든 영역에서 측정시기의 주효과가 나타났다(비전설정 $F=11.30$, $p<.001$, 경제마인드 $F=78.79$, $p<.001$, 직업이해 $F=176.18$, $p<.001$, 구직/생활기술 $F=43.46$, $p<.001$, 실천의지 $F=57.59$, $p<.001$). 그 결과 사전 평균점수와 사후 평균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이전보다 실시 이후 점수가 높아졌다. 또한 ‘비전설정’, ‘경제마인드’, ‘직업이해’, ‘구직 및 생활적응기술’, ‘실천의지’ 등 모든 영역에서 측정 시기와 집단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비전설정 $F=6.54$, $p<.001$, 경제마인드 $F=6.07$, $p<.001$, 직업이해 $F=6.02$, $p<.001$, 구직/생활기술 $F=6.12$, $p<.001$, 실천의지 $F=4.52$, $p<.001$).

<표 4> 참여자 유형별 프로그램 성취도의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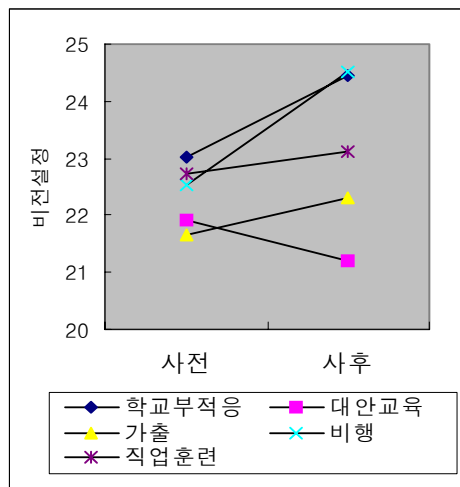
		학교부적응 M(SD)	대안교육 M(SD)	가출 M(SD)	비행 M(SD)	직업훈련 M(SD)
비전설정	사전	23.03(3.90)	21.92(4.68)	21.67(4.08)	22.54(4.09)	22.74(4.47)
	사후	24.45(4.22)	21.20(3.96)	22.29(4.66)	24.51(4.21)	23.13(4.15)
경제 마인드	사전	19.42(3.50)	18.32(3.88)	19.26(3.48)	18.40(3.45)	20.48(4.09)
	사후	22.63(4.17)	19.67(3.56)	20.43(5.10)	22.10(4.55)	21.44(4.39)
직업이해	사전	17.46(4.17)	16.88(4.17)	17.54(3.64)	16.30(3.82)	17.97(3.34)
	사후	21.99(4.31)	19.80(4.17)	19.96(4.88)	21.23(4.70)	20.06(4.40)
구직/생활 기술	사전	33.28(4.42)	31.07(5.55)	31.17(5.67)	32.23(5.31)	32.23(5.31)
	사후	36.49(6.17)	30.91(5.67)	32.89(7.40)	35.52(6.58)	34.37(5.76)
실천의지	사전	27.22(4.81)	26.23(5.40)	26.49(4.96)	26.76(5.04)	28.63(5.74)
	사후	30.34(5.60)	27.58(5.79)	28.64(6.51)	30.74(5.70)	29.53(5.59)

<표 5> 프로그램 성취도의 혼합 변량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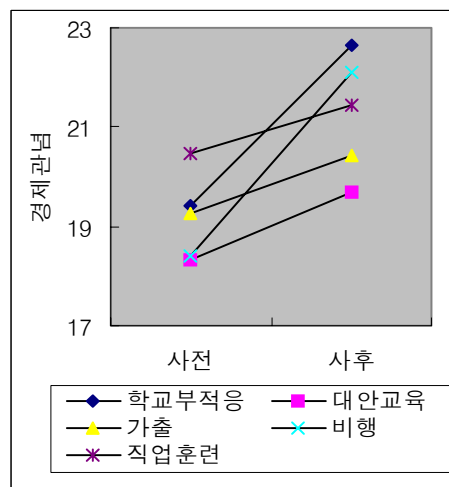
요인	변량원	SS	df	MS	F
비전 설정	측정시기	106.67	1	106.67	11.30***
	집단	757.31	4	189.32	7.29***
	시기×집단	246.83	4	61.71	6.54***
경제 마인드	측정시기	840.52	1	840.52	78.79***
	집단	515.57	4	128.89	6.07***
	시기×집단	328.24	4	82.06	7.69***
직업 이해	측정시기	2224.73	1	2224.73	176.18***
	집단	251.75	4	62.94	2.72*
	시기×집단	303.83	4	75.96	6.02***
구직/생활 기술	측정시기	841.90	1	841.90	43.46***
	집단	1939.80	4	484.95	10.32***
	시기×집단	473.85	4	118.46	6.12***
실천 의지	측정시기	1032.04	1	1032.04	57.59***
	집단	609.95	4	152.49	3.68**
	시기×집단	323.63	4	80.91	4.5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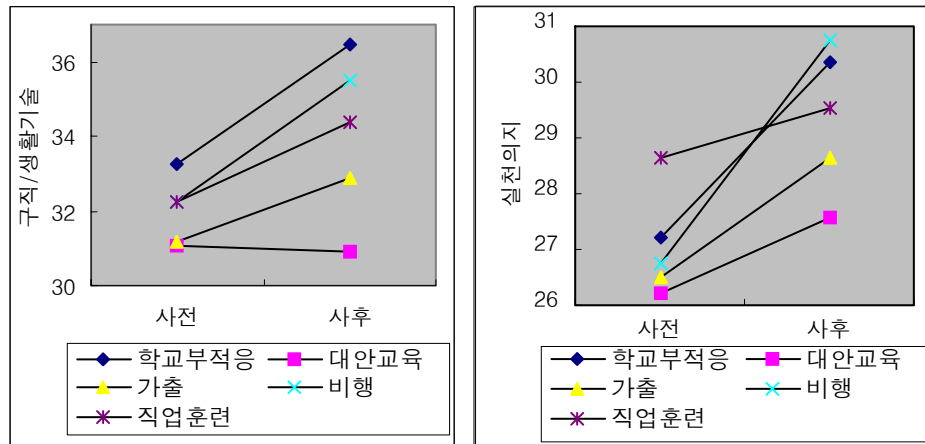
다음으로 집단 ×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으로 나타내었다. ‘비전설정’에서 학교부적응집단, 가출집단, 비행집단, 직업훈련집단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비행집단의 경우 사전 점수에서는 중간 수준을 보였으나 사후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안교육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경제마인드’에서 모든 집단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비행집단의 경우 사전 점수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사후 점수에서는 학교부적응 집단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구직 및 생활적응기술’에서는 대안교육집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집단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안교육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점수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천 의지’에서는 5개 전체 집단에서 사후로 갈수록 점수가 향상되었다. 비행집단의 경우 사전 점수에서 중간 수준을 보였으나 사후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림 3] 측정시기×집단간 비전설정



[그림 4] 측정시기×집단간 경제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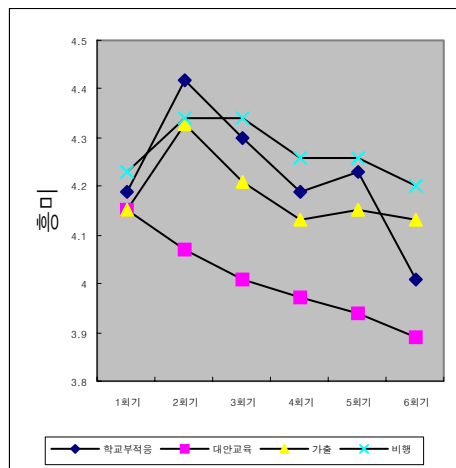
[그림 5] 측정시기×집단간 구직/생활기술 [그림 6] 측정시기×집단간 비전 실천의지

3. 프로그램 회기별 흥미성, 유익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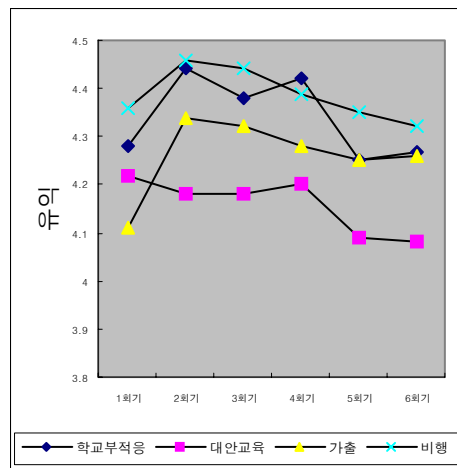
[그림 7], [그림 8]은 프로그램 만족도를 구성하는 2가지 차원의 점수-흥미성, 유익성의 점수가 회기별로 어떠한 양상을 변화하는지 제시한 것이다. 직업훈련집단의 데이터는 누락되어 이를 제외한 4개 집단의 점수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안교육집단을 제외하고 3개 집단 참여자들은 각 회기에서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참여자들은 2회기($M=4.31$)를 가장 흥미롭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회기($M=4.25$), 1회기($M=4.19$), 4회기($M=4.17$), 5회기($M=4.17$), 6회기($M=4.07$)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성 점수는 대안교육집단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회기 진행순서별 전체 경향은 2회기때 가장 높고 회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비행집단은 타집단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흥미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회기가 큰 변화 없이 흥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안교육집단의 경우 타집단에 비하여 전체 흥미 점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1회기 이후 흥미점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집단 참여자 모두 각 회기를 4점 이상의 유익성 만족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각 프로그램을 유익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참여자들은 2회기(M=4.39)를 가장 유익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회기(M=4.36), 1회기(M=4.27), 5회기(M=4.26), 6회기(M=4.25) 순이었다. 모든 집단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유익성 점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흥미성과 마찬가지로 회기가 진행될수록 유익성 점수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비행집단은 타집단에 비하여 각 프로그램을 유익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대안교육집단은 상대적으로 덜 유익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성 점수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다.



[그림 7] 회기×집단간 흥미점수



[그림 8] 회기×집단간 유익점수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그램(두드림존프로그램)을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시한 후 각 유형별로 그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두드림존 프로그램 중 1단계 동기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520명이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검증 결과, 두드림존 프로그램은 자립 및 사회진출에 필수 요소에 해당되는 비전설정, 경제마인드, 직업이해, 구직 및 생활적응기술, 그리고 실천의지를 높이는 데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경우 ‘계획성’, ‘자기이해’, ‘정보탐색 및 진로의사결정’, ‘독립성’ 영역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드림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사전-사후 점수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4일간의 단기프로그램이 참여자의 태도 차원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총 6회기에 걸쳐 진행된 각 프로그램의 과정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회기별 흥미성과 유익성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자의 유형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대안교육집단을 제외한 다른 전체 집단에서 흥미성과 유익성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위기청소년들은 학교부적응집단을 제외하고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이탈된 청소년들로서 학습 결손의 누적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주의집중력이 짧고, 학습 환경 자체가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간의 집중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4점 이상을 보였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참여 중심의 교육, Edu-work 개념의 진행 방식, 직업테마의 프로그램 체험장 두드림존의 설치 등을 주력하였기에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회기별 만족 수준, 회기진행 순서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회기가 진행될수록 흥미성과 유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3회기(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점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의 회기간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담회기평가(SEQ,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tiles & Snow, 1984)를 적용한 연구들에 의하면, 집단 발달 단계에 따라 회기 평가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거나(이행주, 2000), 혹은 1회기에 높다가 2회기에 낮아져서 이후 회기까지 꾸준히 높아지다가 종결회기에 다시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준다(이숙영, 이윤주, 2002).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2회기까지 높아지다가 3회기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기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집단프로그램의 발달별 특성과 추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위기청소년 유형별 두드림존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회기별 프로그램 배열 구조 및 회기 시간 배정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두드림존 프로그램 참여자의 생활 경험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이러한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부적응집단과 비행집단이 대안교육집단, 가출집단, 직업훈련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로성숙도와 자립 및 사회진출에 필요한 핵심요인들에서 상당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이후 각 척도마다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또한 타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비행집단에 소속된 소년원생의 경우 퇴원을 1개월 앞둔 상태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집단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각 요소들이 매우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소년원 퇴원에 대한 기대감과 퇴원=자활이라는 현실적인 여건과 맞물리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교육집단의 경우 타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인 흥미성 및 유익성 점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회기가 진행될수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진로성숙도와 프로그램 성취도의 사전-사후 점수 변화에서 프로그램 실시 이후 타집단에 비하여 적은 변화를 보이거나, 혹은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사전검사 점수에서도 타유형의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낮은 성적 등으로 정규

고등학교로의 입학이 용이치 않아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오래된 학습 결손의 누적으로 인한 학습 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이 프로그램의 각 요소를 이해하고 몰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적 지적 수준, 집중력, 몰입 수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집단의 경우 각 척도의 하위 영역별 사전점수에서 타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사후점수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혹은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직업훈련집단의 주대상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빈곤층을 위한 SK행복날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능대학에서 전문기술을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직업 자체가 자아실현, 자기 성장의 개념보다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직업 역할 정체감(work role identity)을 형성하게 된다(Blustein, 2001; Blustein, Chaves, Diemer, Gallagher, Marshall, Sirin & Bhati, 2002). 직업전문학교 혹은 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빈곤층의 경우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거나 유학을 뿌리치고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서정아 외, 2007)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프로그램을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직업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진미석(2007)의 연구와는 달리 두드림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효과 분석을 해봄으로써 두드림존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이들의 생활환경 및 욕구,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립에 대한 의지 및 준비 수준, 자립관련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되게 운영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방법은 두드림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통제집단이나 비교집단을 두지 못해서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살펴볼 수 없었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들이 두드림존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인지 아니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형태의 사회진출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인지를 구분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두드림존프로그램 실시집단과 사회진출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 실시집단, 및 아무런 개입이 없는 통제집단

을 비교한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를 통해 두드림존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두드림존프로그램에 참여한 위기청소년의 사례수가 일정치 않아 집단간 크기에서 편차가 발생하였고, 집단간 사례수의 불일치가 이후의 유형별 효과검증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드림존프로그램에 참여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효과검증이므로 엄격한 실험적 설계를 적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향후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추후 효과 검증의 단계가 생략되었다. 자립의 동기 및 근로 의욕 제고는 단기간 내에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함은 물론 두드림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를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인 관찰 필요하다. 예를 들어 1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중에서 2단계, 3단계 과정으로 나아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단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추적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진로탐색에 관한 연구들이 단기간에 걸친 진로탐색 행동으로부터 기인한 발달적 성과에 연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추어 볼 때(Linn, Ferguson, & Egart, 2004), 본 연구 역시 4일간의 프로그램 참가 직후 사후검사를 통해 진로성숙에서의 상승적 변화를 주요한 성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사회진출과정에서의 자립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 받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드림존프로그램이 여러 시범운영기관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설 여건과 운영진 변인이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효과 검증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복정(2002).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10호, pp. 33-48.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해수·서정아·정찬석(2007). 대안학교와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의 학교밖 경험 비교: 개념도 방법론을 통하여. 상담학연구, 제8권 제2호, pp. 657-674.
- 김지혜(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 207-234.
- 김혜래·이혜원(2007).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지위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3권, pp. 33-63.
- 노 혁(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 생활 및 자립 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p.94-117.
- 문미란(199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선(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연구. 사회복지실천, 제4권, pp. 85-112.
- 서정아·권해수·정찬석(2007). 직업전문학교 청소년과 거리청소년의 생활 경험 비교 연구: 정규학교 중단 후 힘든 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1호, pp. 213-245.
- 신혜령(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1권, pp. 90-124.
- 양종국(2004). 체험활동중심 진로탐색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 92-105.
- 오승환(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제21권, pp. 181-205.
- 이숙영·이윤주(2002). 비행청소년 집단상담의 회기평가와 효과요인분석을 통한 효과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0권 제1호, pp. 147-163.
- 이시연(2005). 빈곤 청소년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청소년자활지원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7-37.
- 이용교(2006). 새터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 8권 제1호, pp. 51-67.
- 이창호 · 조규필 · 송원영 · 한지현 · 박가열 · 박원배 · 김선옥 · 최수미 · 김범구 · 김소라 · 정재윤(2007). 두드림존 프로그램 매뉴얼 1단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행주(2000).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아개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 전남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 박필자(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1호, pp. 191-210.
- 이희연(200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383-420.
- 임 언 · 정윤경 ·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경숙 · 노재봉(2003).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진미석(2007). 2007 두드림존 프로젝트 평가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7). 2007 두드림존 프로젝트 결과보고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Baron, S. W. & Hartagel, T. F. (1998). Street youth and crimi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5 No. 2, 166-192.
- Blustein, D. L. (2001). Extending the reach of vocational psychology : Toward and integrative and inclusive psychology of work.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9, 171-182.
- Blustein, D. L., Chaves, A. P., Diemer, M. A., Gallagher, L. A., Marshall, K. G., Sirin, S. Bhati, K. S. (2002). Voices of the forgotten half : the role of social clas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9 No. 3, 311-232.
- Cook, R. J. (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Prepared for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Rockville, MD: Westat, INC.
- Linn, P. L., Ferguson, J., & Egart, K. (2004). "Career exploration via cooperative

education and lifespan occupational choi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5, pp. 430-447.

Maluccio, A, Krieger, R. and Pine, B.A. (1990). Adolescents and their preparation for life after foster family care : An overview. In A. Maluccio, R. Krieger and B. Pine (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Washing, DC.

Mech, E. V. (1994). Preparing foster youth for adulthood: A knowledge-building perspective.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Vol. 16, pp. 141-145.

Neumark, D., & Joyce, M. (2001). Evaluationg school-to-work programs using the NLSY.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6 No. 1, pp. 666-702.

Shevlin, M., & Millar, R. (2006). Career education: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to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school pupil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6, pp. 141-153.

ABSTRACT

An Analysis of Transition-Support Program Evaluation for the Self-Independence of At-Risk Youth. : Focusing on the Types of DoDreamZone Program Participants

Cho, Gyu-Pil* · Kweon, Hae-Soo** · Kim, Bum-Goo*** · Park, Ka-Yeul****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evaluation which exist according to the various types of participants in the program for youth's self-independence in transition process into society (DoDreamZone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20 at-risk youths (138 school maladjusted youths, 92 youths in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 57 runaway youths, 190 delinquent youths, and 43 youths in vocational school)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stage of the DoDreamZone motivational education programs which were held in DoDreamZone model institutes. This program has been intensive in nature and is conducted through 6 sessions over 4 days, for 18 hours in total. To prove and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internally-developed Program Achievement Inventory and the Program Satisfaction Inventory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 Mixed ANOVA was applied in order to evaluate the difference in program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diverse types of participants. As a result, the DoDreamZone program was observed to have increased the career maturity level of participants and it has been shown to have

* The Doctor's Course of the Chung-Ang University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ad a meaningful effect in enhancing essential elements in transition such as establishing vision, an economical world view, understanding one's career, general life skills and job seeking skills, and the creation of a will for action.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articipant type, the school-maladapted group and the delinquent group have shown relatively higher performance levels than the alternative education group, the runaway group and the group undertaking job-training. Additionally, although all of the participants (except for the alternative education group) have shown relatively high levels of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level itself had a tendency to drop as the session progres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offer important suggestions in developing more specialized DoDreamZone programs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different types of at-risk youth.

Key Words : At-risk youth, self-support, school-to-work transition, DoDreamZone

투고일 : 3월 16일, 심사일 : 4월 29일, 심사완료일 : 5월 20일

